

# 신차 효과 덮는 노조파업... 물량 부족현상 불보듯

##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결의

추석 연휴 앞두고 노사협상 고비  
통상임금문제 노사 이견 차이 커  
소급분서 의견 차이 좁히기 쟁점



구호 외치는 현대자동차 노조

/연합뉴스

상반기 실적 반등에 성공한 현대·기아자동차가 노조의 파업가결로 발목이 잡혔다. '신차 효과'가 기대되는 일부 차종의 생산차질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협상 시한으로 계획하고 있는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한 달간 노사 협상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이 8월 초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오는 10월 새 집

행부 선거 일정이 잡혀 있다. 현 집행부는 추석 전 타결을 1차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휴가 이후인 8월 중순부터 지난해 최악의 실적부진 탓에 양보했던 임금 및 성과급 인상분을 상반기 실적 이 오른 만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분

기 만에 1조원 대를 넘어섰다. 판매는 110만 4916대, 매출액은 26조9664억원을 기록했다. 기아는 2분기 연속 영업이익 5000억원대를 달성했다.

이에 기아차는 기본급 3만8000원 인상, 성과 격려금 150%+150만원, 재래 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조가 요구하는 상

여급의 통상임금 적용안, 최저임금 해결문제 등이 남아 있어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와 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조합원에게 합의금(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요구다.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사측은 기아차 방식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세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섭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사측이 이미 승소한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현대차 노사 간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해 상여금 75% 중 격월로 지급하는 600%를 매달 50%씩 나눠주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일부 합의해도 소급분에서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파업 계획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내달 중순부터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팰리세이드, 쏘나타, 그랜저, 셀토스 등 주문이 많은 인기 차종은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팰리세이드는 대기 수요가 길어지자 최근 울산4공장에 이어 2공장에서도 공동생산하는 방안이 합의했지만 소비자들의 인기에 부응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팰리세이드는 심각한 물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계약 후 차량을 받기까지 7~8개월이 걸릴 만큼 국내에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최근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된 북미 시장에서도 평가가 좋아 수출 물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이례적으로 3개월여 만에 월 40% 증산에 노사가 합의해 현재 월 8600대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LG전자, 애플 호환 5K 모니터 첫 선

### 'LG울트라파인' 글로벌 시장 출시

LG전자가 애플 제품에 꼭 맞는 모니터를 출시했다.

LG전자는 31일 'LG울트라파인' 5K 모니터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북미와 유럽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아시아에도 판매할 예정이다.

5K 모니터는 애플 '맥' 시리즈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맥북프로와 맥미니 등 애플 제품 규격인 썬더볼트3 단자도 포함했다.

썬더볼트3는 1초에 최대 40Gbps로 5K 해상도 고화질 영상을 출력하고 초고속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94W 충전 전력을 사용해 모니터에서 제품을 충전하도록 배려했다. USB-C를 이용해 아이패드와도 연결된다.

애플 OS와도 높은 호환성을 보장한다. 맥OS 모하비 10.14.6과 iOS 12.2 버전부터 지원한다. 맥북프로 터치바나



LG전자는 애플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5K 모니터를 출시했다.

/LG전자

키보드에서도 모니터 밝기와 소리 볼륨을 제어할 수 있는 등이다.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도 내장했다. '페이스타임'도 무리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낮밝이와 기울기 조정도 손쉽다.

크기는 27인치, 해상도는 5120×2880이다. 풀HD보다 7배 높다. 전문가를 위해 디스플레이 색영역 P3를 지원하고, IPS패널도 탑재했다.

/김재용 기자 juk@

## “기업이 경제가치만 추구하면 지속가능 없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진 개원식 사회적 공헌 중요성 재차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업이 경제적 가치만 추구하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것.

3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30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SK그룹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확장 이전 개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보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속도가 더 빠른 복잡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경제적 가치만 추구해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SES 이사장인 최 회장은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적 가치 측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을 만들었다”면서 “이전을 계기로 연구원이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학문적



최태원 SK그룹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사회적가치연구원 구성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이진 개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

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표준화하기 위한 플랫폼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SES는 SK그룹이 150억원을 출연해 지난해 4월 설립했으며,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그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사업

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공동 적용이 가능한 사회적 가치 지표 제작을 공동 연구 중이며 중국의 국유기업 총괄 부처인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ASAC)와도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 “삼성건조기 후기 올리면 70만원 할인”

### 삼성전자, 8월 대규모 혜택 마련

삼성전자가 건조기 구매자들에게 대규모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8월 한달간 '대한민국 안심 건조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페스티벌은 '그랑데 안심건조 무상 체험단'으로 시작한다. 100명을 선정해 건조기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100명에는 20만원 상당 구매 혜택을 부여한다. 구매 후기를 SNS에 올린 고객 100명에는 최대 70만원 추가 할인도 준다.



삼성전자는 광복절에 그랑데 건조기 구매 고객에 15만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삼성전자

광복절도 기념한다. 8월 15일 그랑데 건조기를 구매하면 모든 고객들에게 15만원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김재용 기자

## ‘LG V50 씽큐’ 듀얼스크린 무상증정 ‘한달 더’

### 많은 고객 경험 위해 연장

LG전자가 LG V50 씽큐(ThinQ) 전용 액세서리인 LG 듀얼 스크린의 무상 증정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

LG전자는 LG V50 씽큐 구매 고객들에게 7월 말까지 예정이던 LG 듀얼 스크린 무상 증정 프로모션을 한 달 늘려 8월 말까지 진행한다.

LG 듀얼 스크린의 사용 편의성을 보다 많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LG 듀얼 스크린의 출고가는 21만9000원이다.

LG전자는 지난 5월 LG V50 씽큐와 LG 듀얼 스크린을 출시한 후, 고객 체험 마케팅에 집중해 왔다.

LG 듀얼 스크린은 고객이 원할 때만 2개의 화면으로 여러 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탈착식 올레드 디스플레이다. 2개 화면을 연동해 각각 게임 패드와 게임 화면으로 나누어 쓸 수도 있어 게임 몰입감이 극대화된다.

LG전자는 고객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LG 듀얼 스크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지난 20일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LG V50 씽큐 게임 페스티벌에 방문한 관람객이 LG 듀얼 스크린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LG전자

기대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